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맨 호남 與 의원 속출



광주·전남 새정치 독점 깨지나

내년 4월16일에 치러질 제20대 총선의 관련 포인 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일당 독점' 구도가 이어질지와 지난해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수성(守成) 여부다.

또한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국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에 따른 새로운 야당 후보의 당선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모두 국회 정치개혁으로 집중되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이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중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이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정당별 비례대표 배분을 통해 여야가 모두 특정 지역에서 교차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독점 폐해를 막

정개혁위 "지역구도 완화" 도입 논의

야권 재편 군소 후보들 도전도 거세

새누리 이정현 의원 수성 여부 관심

아보자는 취지다.

이런 경우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선거구를 독식해오던 새정치민주연합 일당 독점 구도도 깨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이번 4·29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 가능성이 접착되면서 새로운 야당 후보들의 총선 도전이 러시를 이룰 가능성과 새누리당 후보들의 도전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의원 숫자는 현재의 2배 가량 늘어난다. 현행은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을 보이는데,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석수(300석)를 나누게 되면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다 지역구 감축에 대한 여야 현역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우선적으로 줄어들면서 도시와 농어촌간 불균형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 안을 적용하면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역의 의석은 현행 33석에서 34석으로 1개 늘어나는데 그친다. 반면 서울권역은 현행 48석에서 59석으로 11석이 늘어나고, 인천·경기·강원이 73석에서 98석으로 무려 25석이 증가한다.

부산·울산·경남은 40석에서 47석으로 7석이, 대구·경북은 27석에서 31석으로 4석이 늘어나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이 25석에서 31석으로 6석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권과 관심이 집중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U대회 맞이 거리청결 캠페인 9일 오후 광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서구 유스퀘어 광장에서 오는 7월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거리 청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누리,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전면 도입

새누리당은 9일 일종의 예비선거제도인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년 제20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역선택과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의 권리가 유명무실화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일단 정식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수로 이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오픈 프라이머리는 완전국민경선제로 풀이하나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로 국민공천제라는 명명했다.

이날 당 혁신위가 마련해 의총에 보고한 오픈 프라이머리안은 전라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선에 불복해 탈당할 뒤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기준으로 5년간 복당도 금지하도록 했다.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문제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도 예비선거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바꾸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추천을 허용하는 석패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215개 사업 2조1728억 건의 전남도 동서해저터널 등 2조6330억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본격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전쟁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사회의실에서 '2016년 국비지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내년도 국비 확보 예산으로 전년보다(177건 2조1006억원) 800여억원 늘어난 215건 2조1728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신규사업도 71건 2902억원을 발굴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역점 신규사업은 관광·문화사업으로 분야 문화전당주변 문화·관광환경 조성(22억원),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5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20억원) 등 18건 257억원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676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38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559억원) 등 21건 2034억원이다.

또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초기우수 통합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35억원)을 비롯한 용봉·서방천 수질개선사업(18억원),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사업(90억원) 등 21건 30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투융자 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를 최종 점검한 뒤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중앙부처에 5월10일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부부처에 2016년 예산으로 222개 사업에 2조6330억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145건에 5399억원, 계속사업은 77건에 2조931억원이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빈약한 전남도의 예산 건의액의 61.6%가 국토교통부에 집중돼 있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 모두 2조4731억원이 소요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2016년 예산으로 1000억원을, 1조3083억원짜리 남해안 철도(목포~보성~순천)와 1조7990억원이 들어갈 예정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2016년 예산으로 각각 2000억원을 건의했다.

신규사업 중에는 동서해저터널(여수~남해안도로, 전체사업비 5040억원)에 100억원, 압해~화원간 연결도로 개설(4265억원)에 100억원, 호혜원 축산업 폐업 보상(300억원)에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환경부에도 19건 3746억원을 요청했다. 이역시 상·하수도 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전체 사업비 1조8899억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2조2660억원)의 2016년 예산으로 각각 840억원과 1295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도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하는 만큼 앞으로 부처안에 이들 예산을 포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Treksta www.treksta.co.kr

손 댄 필요 없이 신고 벗는다!

GOLD WINNER

ISPO AWARD

ASIAN PRODUCT OF THE YEAR

ISPO AWARD

트렉스타 핸즈프리 세계 최초 스포츠바람막이(SPO)에서 손 대지 않고 신고 벗는 혁신적인 기술로 황금상 및 아시아제품상 대상 동시수상! 트렉스타가 전세계 아웃도어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습니다

핸즈프리 103 고어텍스 네이비

세계최초 스포츠아웃도어 바람막이 ISPO 2관왕 **핸즈프리 감사세일 이벤트**

1. 핸즈프리 브랜드데이 **30% 세일** 2. 중등산화 브랜드데이 **30% 세일** 3. 봄 신상품 의류 전품목 **50% 세일**

[제품문의] 1599-0055 [매장 개설문의] 이충락 차장 010-3061-7771

세종특별자치시: 02-350-4339-8 | 대전광역시: 02-350-4339-9 | 광주광역시: 02-350-4339-10 | 목포광역시: 02-350-4339-11 | 서울특별시: 02-350-4339-12 | 부산광역시: 02-350-4339-13 | 대구광역시: 02-350-4339-14 | 인천광역시: 02-350-4339-15 | 울산광역시: 02-350-4339-16 | 강원도: 02-350-4339-17 | 충청남도: 02-350-4339-18 | 충청북도: 02-350-4339-19 | 경상남도: 02-350-4339-20 | 경상북도: 02-350-4339-21 | 전라남도: 02-350-4339-22 | 전라북도: 02-350-4339-23 | 충청권: 02-350-4339-24 | 서울권: 02-350-4339-25 | 부산권: 02-350-4339-26 | 대구권: 02-350-4339-27 | 인천권: 02-350-4339-28 | 울산권: 02-350-4339-29 | 강원권: 02-350-4339-30 | 충청권: 02-350-4339-31 | 충청권: 02-350-4339-32 | 충청권: 02-350-4339-33 | 충청권: 02-350-4339-34 | 충청권: 02-350-4339-35 | 충청권: 02-350-4339-36 | 충청권: 02-350-4339-37 | 충청권: 02-350-4339-38 | 충청권: 02-350-4339-39 | 충청권: 02-350-4339-40